

### F1 코리아 성공개최 이끈 사람들

#### “한국의 멋·전남의 美로 F1 열정 강조”

##### 개막행사 총연출 조수동 감독



14일 F1 결승전 직전에 열린 개막행사는 그동안의 단순한 퍼레이드 형식에서 탈피해 한국적인 멋과 영암의 아름다움을 잘 조화시켜, F1의 열정을 강조했다. 평가를 받았다.

개막행사를 총 연출한 조수동(55) 서울예술단 총 감독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전남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면서 F1 엔진의 굉음이 감동으로 느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콘셉트를 ‘F1 열정을 지금’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2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담아내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결승 직전 서킷이라는 협소한 장소에서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 제약이 많았다. 조직위와 드라이빙 기업들의 요구도 빚발쳤다. 공연 내용들이 시시각각 바뀌기도 했다.

특히 F1 굉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에겐 가장 큰 과제였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다.

생각 끝에 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이 영암의 바다였다. 140여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천을 들고 춤을 추면서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표현했다. 그리고 관람객과 선수, 모든 F1 관계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발춤’을 관객행사로 준비했다.

조 감독은 “싱가포르에서 접한 F1은 한마디로 축제였다”며 “이제는 영암의 F1이 자리를 잡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한국 의료·IT 기술 세계에 알렸다”

##### 의료책임자 전남대병원 범희승 교수



“세계 최초 F1 대회 전용 전자기록을 도입해 우리의 수준 높은 의료와 IT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한국인 최초로 의료책임자(CMO·Chief Medical Officer)를 맡은 전남대병원 범희승(55) 교수는 어느 대회 못지 않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2차례 대회 때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선임한 릭 하겐(64·호주)씨가 의료책임자였다.

범 교수는 이번 F1 기간 FIA, IT업체 등과 상의해 선수와 스태프, 오피셜 등 F1 관계자들의 의료기록을 모두 전산화해 ‘F1 경기장 전용 전자기록’을 도입했다. 세계 최초였다.

그는 “이 같은 기술을 한국만이 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을 전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범 교수는 대회기간 내내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150여명의 이르는 의료 오피셜을 통제하고, 구급차량, 헬기 등의 위치를 점검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매일 선수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는 각 팀 메카닉 스태프들의 건강에도 신경을 썼다.

그는 “다행이 이번 대회에서는 큰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내년 대회 준비를 위해 다시 땀을 흘릴 때”라고 의지를 다졌다.

#### “팀 작전·선수 스타일 보면 재미 두배”

##### 4개 국어 홍보 자원봉사자 전한외씨



“한국 출신 레이서가 배출되면 F1 열기가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달아 오를 것입니다.”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조직위원회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전한외(25·인도네시아 수라바야)씨. F1 마니아인 그는 지난달 자원봉사를 위해 자비를 들여 미국에서 낚아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F1 경기장에서는 그의 특기인 영어, 독일, 한국어, 인니어 등 4개국어를 구사하며 대회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다.

부산이 고향인 전씨는 지난 2000년 아버지의 사업관계로 인도네시아에서 살게 되면서부터 F1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지난 2010년 F1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사실이 그를 흥분하게 만들었다. 당시 25사단에서 근무하던 그는 전역 후 영암으로 공장 달려와 자원봉사를 자청했다. 지난해 대회에는 독일 유학중이어서 참석을 할 수 없었다.

전씨는 “아직은 한국에서 F1의 인기를 실감하기 힘들고,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며 “공부를 하면서 잠시 머물렀던 독일만하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레이싱 스포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카드장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꼭 누가 빨리 달리는지만은 보지 말고, 각 팀의 작전과 선수들의 스타일 등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면 재미가 배가 된다”며 “한국도 언젠가는 F1 드라이버를 배출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시 경제부시장에 이형석씨



광주시는 14일 “공직중인 경제부시장에 이형석(51·사진) 전 청와대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내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등 임용절차를 거쳐 경제부시장에 임용할 예정이다.

순천 출신인 이 내정자는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을 거쳐 광주시의회 3, 4대 의원과 최연소 광역의회 의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여수 해역에서 3년 만에 발생한 ‘가을 적조’로 안도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참돔 3만5000여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첫 피해가 됐다. <여수시 제공>

### 여수서 ‘가을 적조’ 첫 피해

#### 해상 양식장 참돔 3만5000마리 폐사

전남지역 해역에서 3년 만에 발생한 ‘가을 적조’로 여수시 남면 안도 해상 양식장 참돔 3만5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전남도는 14일 “지난 13일 오전 8시께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안도 박모(51)씨의 양식장에서 참돔 3만5000마리가 폐사해 1억여원의 피해를 냈다”고 밝혔다.

흔히 적조는 찬바람이 부는 가을에

는 사라지는데 올해는 때마침 가을적조가 기승을 부려 지난 5일부터 고층, 여수 일대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 방역 당국은 이 해역의 수온은 22.6℃로 평년보다 2℃가량 높아 적조가 다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 분석에 나섰다.

또 전남도는 적조방제선 2척을 동원, 황토 등 구제물질 80톤을 살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응원하던 윌리엄즈팀 직접 만나 영광”

#### F1코리아 ‘행운의 주인공’ 당첨 포어맨·전성영씨 부부

F1 결승전이 열리는 14일 윌리엄즈(WILLIAMS) 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이들은 대회전 트위터 응모를 통해서 선발된 윌터 A. 포어맨(41·Walter A. Foreman)·전성영(여·38)씨 부부.

윌리엄즈 팀 복장을 착용하고 팀 빌딩을 찾은 포어맨씨 부부는 수많은 F1 팬들과의 경쟁을 물리치고 ‘행운의 주인공’으로 당첨돼 이날 스태프들과 경기전 피트와 개라지, 팀빌딩 곳곳을 둘러보고, 결승전을 함께 관람했다.

또 윌리엄즈팀의 파스토르 말도나도(Pastor Maldonado)와 브루노 세나(Bruno Senna)를 직접 만나 경기전 작전과 컨디션과 서킷 상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기도 했다.

포어맨씨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팀에서 직접 선수들과 얘기를 비비고 악수를 하면서 경기 일정에 대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내 생애 최고의 날인 것 같다”고 기뻐했다.

14년 전 한국에 들어와 고려대학교 국제처와 tbs eFM 진행자로 일하고 있는 포어맨씨와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씨는 모두 F1 마니아다. 대학교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결혼한 이 부부는 독일, 중국 등 국제 대회를 직접 찾아다니는 정도다. 특히 지난 2010년 영암에서 최초로 F1 대회가 열리지 올해까지



자원봉사를 자처한 F1의 숨은 일꾼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에서는 두 부부가 함께 메인 그랜드 스탠드에서 통역 봉사활동을 했다.

포어맨씨는 “3년째 대회를 찾고 있는데, 해마다 경기운영이나 내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회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머지않아 손에 꼽히는 F1대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선수를 응원하는 것도 F1을 관람하는 재미 가운데 하나지만 우리는 모든 팀과 선수를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충격이 장난 아니겠다

### 산동중의대학 침구(針灸) 연수생 모집 3년 필업(졸업)과정

- 교육기간 : 3년 ● 모집전공 : 침구과
- 모집기간 : 2012년 12월 20일까지
- 교과내용 : 침구학, 침구치료학, 추나학, 해부생리학, 본초방제학, 사암오행, 동씨기혈 등
- 중국자격증, 면허 취득 가능
- 중의대 석박사학위 과정 진학가능
- 해외 한의대 편입, 해외 한의사 진출

#### “알기쉬운 침구학”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주요과목 : 침구학개론 (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전문과정(1년)  
주요과목 : 중국침구학연수, 중의학, 경혈학, 진단학, 방약학, 해부학 등

공개방화합점 광주31기) 10월 19일(금) 오후 2시

위치 : 상촌역 1번출구에서 화정역방향으로 50m 직진 3층

CH 아카데미 | 평생교육원  
www.wch.ac.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서울분원/대전분원/대구분원/부산분원/울산분원/광주분원/제주분원

### 철학연수원

#### 수강연수 강의료 무료!

현재 무속인 역술철학 운영자 환영!

- 수강종목**
- 사주명리** 기초부터 완결까지 6개월
- 자미두수** 천문별빛의 굴절과 인간의 운명, 노력의 결실과 숙명의 한계성 강의, 경천동지할 비율의 세계, 기초에서 완결까지 6개월
- 풍수지리** 실천풍수의 음양택비결, 땅의 성정이 실로 지향하는 바가 정녕 무엇이며, 그 진실과 허상을 증명해 간다. 기초에서 완결까지 6개월

**禪의 길**  
조작되는 인간의 뇌파와 우주관, 과연 도당은 일도 숙명인 것인가? 도의 구극적인 진성은 닦고 가공해서 만들어 내는 예술품이 아니다. 닦고 가공해서 만들어 내는 예술품이 아니다. 인식이 증명되는 과정의 지혜강의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포괄적 강의) 자격제한 없음  
2012년 10월부터 매주 수 토 일 오후 2~5시

#### 강의 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대 상류 소재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 신용카드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 개인 출장가능!

골드유통  
010-2082-6353, 062)383-6364

###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임)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 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남골묘, 선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임대용 아파트, 원룸, 상가 다양물건보유

20년 원조 땅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구정원)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 검색